



40여년만에 국윤미술관에서 첫 전시회를 열고 있는 조용남 작가.



‘문자추상’ 선보이는 40년만의 첫 전시

서양화가 조용남 ‘시간을 담다’ 전 6월 6일까지 국윤미술관

미술대학을 졸업한 지 40여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붓을 놓지 않았지만 한 번도 작품을 선보인 적은 없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전시회의 꿈은 뒤늦게 그 결실을 맺었고,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됐다.

서양화가 조용남 작가 초대전 ‘시간을 담다’가 오는 6월6일까지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에서 열린다. 1-2전시실을 모두 사용하는 이번 전시는 국윤미술관의 기획초대전으로 마련됐다. “첫 전시를 깔리거나 아닌, 미술관에서 그것도 초대전으로 열 수 있어 너무 영광”이라는 조 작가의 말처럼, 대조 앞에 한번도 작품을 내보이지 않은 ‘신진작가’의 초대전을 여는 건 드문 일이다.

조 작가는 40여년간 일관되게 ‘문자추상’ 작업을 진행해왔다. 문자의 형태를 해체하고 결합하며 새로운 조형성을 만들어가고, 강렬한 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일구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서양화가 국영호 작가가 조 작가의 작품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시작됐다. 국 작가는 “처음 미술관으로 두

점을 가져왔었는데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작품 세계가 눈에 띄었다”며 “그림으로 뒤덮인 집에서 만난 작품들은 자기만의 추상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꾸준한 일관성이 돋보여 자신있게 소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년 공식으로 전시 제안을 받으면서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코로나 19로 자외반 타의반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작품에 매진할 수 있었다. 전시에는 ‘시간을 담다’, ‘삶을 담다’, ‘길을 걷다’ 연작 등 모두 41점이 나왔다. ‘문자추상’의 출발을 알리는 1988년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19-2021년 작업한 작품들이다.

문자형태를 변형해 다채로운 화면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의 오랜 숙제이자, 즐거움이다. 그의 작품은 독특한 질감이 인상적이다. 아크릴 물감이 갖고 있는 다소 가벼운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질감을 살리기 위해 돌가루를 활용하거나 아크릴에 물을 많이 섞어 번짐 효과를 주기도 한다.

전시작 중 컬러풀한 색감이 주조를 이루는 작품들 사이에서 흰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길을 걷다’ 시리즈는 색다른 울림을 준다. 또 한지의 번짐 효과를 연상시켜 마치 한국화처럼 보이기도 하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돕던 초창기

에는 그림 작업도 함께 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물려받게 되며 잠시 주춤했기도 했다. 하지만 붓을 놓지는 않았다. 그림을 그릴 때 그는 가장 자유로웠고, 주말이나 정신적으로 가장 안정될 때 캔버스를 마주했다. 2015년 이후 ‘작업’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갖게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에 몰두했다. 생애 첫 전시를 가장 기뻐하는 이는 그의 그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술교사 아내다.

생애 첫 전시는 그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줬다. 작업실 밖으로 나온 그림이 전시장에 걸린 모습을 보고, 또 관람객들이 그림 앞에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독창성이라고 생각해요. 문자추상은 제 오래된 작업 테마죠. 문자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겹침을 통해 문자를 흐트러트리기도 하면서 작품들을 만들어나갑니다. 전시를 준비하고, 또 전시장에 머물면서 더 심도있는 작업을 펼쳐나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플라주 작업을 시도해 보고 있어요. 또 캔버스 대신, 나무 등 좀 더 다양한 재료들도 활용해 보려합니다.”

전시는 국윤미술관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버스·택시 타고 ‘5월 광주’로 출발~

광주관광재단, 영화 ‘택시운전사’ 현장 여행·‘오월의 버스’ 운행

광주 지역 택시 기사와 함께 영화 ‘택시운전사’의 현장을 둘러보고, 특별한 버스를 타고 80년 5월 광주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관광재단은 최근 ‘택시운전사’가 소개하는 켄(진짜) 광주를 테마로 영화 ‘택시운전사’의 현장을 여행하는 소규모 여행상품을 개발, 판매에 나섰다. 버스를 타고 5·18 연관 사적지를 방문하는 참여형 관광 콘텐츠 ‘오월의 버스’도 운영중이다.

먼저, 택시기사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 전일빌딩 24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상품은 5월 한 달 간 모두투어를 통해 판매한다. 또한 선택관광으로 야경관광코스, 가사문학관을 여행하는 인문학 여행코스를 준비해 여행객들의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지역 행사, 계절에 따라 매월 새로운 코스로 오는 12월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오월의 버스’는 5·18 연관 사적지를 방문하며 연극과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운영했던 오월의 버스와는 달리 버스를 타고 동행하는 배우를 5인에서 2인으로 감축해 진행한다.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하며, 매회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소요시간 약 2시간)다. 코스는 광천시민아트, 국군광주병원 옛터, 양림동 오월



영화 ‘택시운전사’

어머니집, 5·18 민주광장, 5·18 민주화 운동기록관 등 5·18 관련 사적지로 짜여진다.

한 회당 최대 20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탑승료는 5000원이다. 탑승객 전원에게 주먹밥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예매는 전화(062-360-8502), 홈페이지(광주시티투어버스), 현장(유스퀘어 32번 홈키오스크) 등에서 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은 5·18 사적지를 방문하며 연극을 선보이는 ‘오월의 버스’를 운영한다.

드보르작·슈만… ‘더 솔로이스츠’ 무대

1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사)더 솔로이스츠가 광주에 온다. 지난 2015년 더 솔로이스츠 챔버 오케스트라로 출발해 (사)더 솔로이스츠로 이름을 바꾸고 정기연주회, 실내악 시리즈, 한낮의 U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이들이 이번에는 광주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에서 공연을 갖는다.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선보일 공연의 제목은 ‘Collablation with The Legends’.

이날 공연에서는 작곡가 김한기, 안토니 드보르작,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들을 들려준다.

처음으로 들려줄 김한기의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한국적 단소 모음곡 제1번’은 모두 5개의 곡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양적 피리소리를 묘사한 ‘동양의 피리’, 전통 리듬인 궁거리와 자진모리를 사용한 ‘흥겨움’, 전래동요 ‘여우야’를 인용한 ‘피날레-축제’ 등을 선보인다.

이어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아메리카’를 연주한다. 이 작품은 체코 출신인 드보르작이 1893년 미국에서 체류할 당시에 작곡한 곡으로 귀에 쫄쫄



바이올린 김복수

비올라 임정은

들어오는 선율과 경쾌한 리듬을 갖추고 있다. 4악장을 구성했으며, 스필빌의 아름다운 풍경과 조국을 향한 그리움과 애정 등이 담겼다. 공연의 대미는 슈만의 ‘피아노 4중주’로 장식한다. 슈만이 1842년 ‘피아노 5중주’에 이어 작곡한 곡으로 느린 서주로 시작해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피날레 악장으로 마무리된다. 무대에는 바이올린 김복수·권순지, 첼로 이윤희, 비올라 임정은, 피아노 정성흠, 작곡가 김한기 등이 오른다. 전석 2만 원. 문의 010-8277-976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는 18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광주민미협 오월미술전-오월 봄, 봄(Spring&Seeing).



‘오월 봄, 봄’

오월미술전, 18일까지 무등갤러리

엄혹했던 시절, 사회에 대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던 (사)광주민족미술협회 광주지회(이하 광주민미협)는 매년 ‘오월미술전’을 열어왔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고, 민중들의 삶을 보듬는 작품들을 통해 자유, 인권, 평화 등 5월 정신을 기억하고, 발전시켜왔다.

올해로 33번째 맞는 오월미술전이 오는 18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오월 봄, 봄(Spring&Seeing)’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의 오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아픔은 무엇인지, 그 어려움을 딛고서 달고자 하는 봄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답을 찾는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특히 ‘또 다른 광주’로 불리는 미안마을 응원하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눈길을 끈다.

전시에는 김광래-김병택-김화순-박태규-이사범-임남진 등 광주 민미협 회원을 비롯해 전국의 민미협회원, 청년작가, 해외작가 등 모두 30여명이 참여해 조각, 회화, 사진, 설치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들은 지난 5월의 과거와 미래를 담은 작품을 비롯해 환

경문제, 인권 문제, 언론개혁 등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이현남 큐레이터는 “소박하지만 따스한 연대의 의미가 담긴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 또한 우리의 봄이 어디 만큼 왔는지 가능하고 희망찬 미래의 봄도 함께 꿈꿔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